

환상 프리킥에 들썩…센추리클럽 자축 손흥민

한국 축구대표팀 '캡틴' 손흥민(30·토트넘)이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자신의 센추리클럽(A매치 100경기) 기입을 자축했다.

손흥민은 6일 오후 8시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칠레와의 평가전에 선발 출전해 후반 추가시간 상대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얻어낸 프리킥을 오른발 강슛으로 꽂아 넣어 한국의 2-0 승리를 이끌었다.

기다렸던 센추리클럽 자축포가 터자 손흥민은 활짝 세리머니를 선보인 뒤 동료들과 기쁨을 나눴다.

득점 후 주장 원장을 정우영(알사드)에게 넘기고 고승범(김천)과 교체된 손흥민은 4만 관중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칠레전 출전으로 손흥민은 한국 축구대표팀 역대 16번째로 센추리클럽에 가입했다. 대한축구협회 통계 기준으로 박지성·전북 현대 어드바이저, 조광래 대구FC 대표이사(이상 100경기)와 동률이다. 한국 선수 A매치 최다 출전 공동 14위다.

대표팀 역대 최다 출전 공동 1위는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과 흥명보 율선 현대 감독으로 136경기다.

손흥민은 18세 175일이던 2010년 12월 30일 시리아와 평가전(한국 1-0 승리)에서 A매치 데뷔전을 치렀다. 당시 후반 시작 직전 김보경(전북)과 교체됐다. 대표팀 역대 최연소 출전 5위다.

손흥민은 이날 칠레 전을 포함해 A

韓축구대표팀 역대 16번째 A매치 100경기 달성

칠레전 후반 추가시간 프리킥으로 A매치 32호골



6일 대전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과 칠레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한 뒤 손흥민이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매치 100경기 중 무려 83경기를 선발로 뛰며 대체 불가한 존재감을 과시했다.

또 2011년 1월 18일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 2차전 인도와 경기에서 A매치 데뷔골을 넣었는데, A매치 최연소 득점 2위(18세 194일)다.

손흥민은 12년간 태극마크를 달고 뛰며 A매치 100경기에서 32골을 기

록하고 있다. A매치 최다 득점 단독 6위다.

지난 2일 세계 최강 브라질전에서 침묵했던 손흥민은 이날 측면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변신해 칠레 골문을 노렸다.

파울루 벤투 감독은 이른바 '손톱(Son-Top)' 전술로 팀 공격에 다양성을 불어넣었다.

손흥민은 스트라이커로 기용한 전

술 변화는 적중했다. 세계적인 골잡이 손흥민에게 칠레 수비가 집중되면서 공격 2선에 공간이 열렸다.

그리고 전반 12분 정우영(프라이부르크)이 상대 압박을 뚫고 전달한 패스를 황희찬(울버햄튼)이 잡은 뒤 저돌적인 돌파 후 오른발 강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렸다.

손흥민도 칠레 골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렸다.

전반 23분엔 문전 혼전 상황에서 때린 원발 슛이 수비의 몸에 맞고 튕겨 나왔다. 전반 34분엔 드리블 돌파 후 시도한 원발 슛이 골문 옆으로 흘렀다. 상대 퇴장으로 수적 우위를 점한 뒤엔 손흥민의 발끝이 더 날카로워졌다.

후반 12분 상대 패스를 가로챈 뒤 오른발 슛을 했으나 골키퍼에 막혔다. 후반 19분엔 상대 골키퍼까지 제친 뒤 경합 과정에서 넘어졌지만, 주심은 그대로 경기를 진행했다.

터질 듯 터지지 않던 손흥민의 축

포는 후반 추가시간에야 나왔다. 황희찬이 상대 반칙으로 얻어낸 세

트피스 찬스에서 손흥민이 강력한 오른발 프리킥으로 칠레 골문 우측 상단 구석을 훌拊었다.

칠레 골키퍼도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끄르게 정확했다. 결국 손흥민의 100번째 A매치는 축제로 마무리됐다. 한편 경기 후엔 손흥민의 센추리클럽 가입 기념식이 열렸다.

/뉴스



제주 남기일 감독, K리그 5월의 감독 선정

프로축구 K리그1 2위에 올라놓은 남기일 감독이 5월의 감독상을 받았다. 제주는 5월에 치른 6경기에서 4승1무1패를 기록했다. 제주는 5월 한 달간 K리그1 12개 팀 중 가장 많은 승점 13점을 획득했다.

/프로축구연맹 제공

KBO올스타전 팬투표 오늘부터 시작

'베스트12' 후보 120명 발표…내달 3일까지 투표



지 총 26일간 투표를 진행한다.

팬 투표는 KBO리그 타이틀스폰서인 신한은행에서 운영하는 신한 SOL(쏠) 앱과 KBO 홈페이지, KBO 공식 앱 등 총 3개의 투표 페이지에서 1일 1회씩 총 3번 참여할 수 있다. KBO는 3개의 투표 페이지 총 합계 투표수를 취합해 매주 월요일(13일·20일·27일) 중간집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하지 못했던 선수단 투표도 재개된다. 선수단 투표는 6월말 실시한다.

올스타 '베스트12'는 팬 투표 70%와 선수단 투표 30%의 비율을 합산한 최종 점수로 선정된다.

KBO 올스타전은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열리지 않았다. 올스타전 최소에도 '베스트12' 선정 팬 투표는 이뤄진 바 있다.

올해 올스타전은 다음 달 16일 잠실구장에서 벌어진다. /뉴스

기사제보 062)363-8800

호남매일 www.homa.co.kr

전남체육회-목포해양대 MOU…해양스포츠단 지원

해양스포츠 진흥·저변확대…창단지원금 2000만원 전달



전남도체육회와 목포해양대학교가 해양스포츠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남도체육회는 지난 7일 목포해양대학교 종강실에서 최기동 회장직무대행, 한원희 목포해양대학교 총

와 전문체육 역량강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사회 체육발전과 해양스포츠 진흥 및 저변확대를 위해 추진됐다.

또한, 체육회는 지난 4월 창단한 목포해양대학교 해양스포츠단의 창단을 응원하는 의미로 창단지원금 2000만원을 전달하는 전달식 또한 개최했다.

목포해양대학교 해양스포츠단은 조정, 카누, 요트 등 3개 종목과 총 14명의 선수단으로 구성됐다.

선수단은 김지현 해양스포츠센터장과 김민석 코치를 필두로 조정 오윤재, 허명현(이상 3년), 카누 김경민, 장원우(이상 3년), 신진주, 권은희, 박민지, 백경한, 장현준, 박수현, 정유

비(이상 1년), 요트 신현빈(1년)으로 구성됐다.

최기동 회장직무대행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남 해양스포츠를 위해 앞장서주신 목포해양대학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지역에 특화된 해양스포츠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업무 협업을 통해 지역 사회 체육발전 및 사회봉사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원희 목포해양대 총장은 "목포해양대는 해양스포츠 진흥과 저변확대, 나아가 전남체육의 발전과 해양스포츠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양스포츠단 창단과 이번 MOU를 통해 지원해주신 전남체육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목포=박종배 기자



2022 행복해남!

해남형 ESG로 살기 좋은 해남을 만들어가요!

탄소 중립도시 완성
청정해남



환경 Environment

기후변화 대응 | 친환경 | 탄소저감

안전망 구축
함께해남



사회 Social

안전망 구축 | 경제활력 제고 | 교육·공동체 육성

공정한 윤리경영
청렴해남



지배구조 Governance

청렴한 공직문화 | 혁신과 참여행정 | 건전재정